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5>  
“100%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되는 비결”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하라는 대로 100%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다. 100% 순종하는 비결은 마치 배를 타는 것과 같다. 배를 탔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과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겼다가 되는 것이다.

배를 타는 자가 어떻게 한쪽 발은 물에 두고 한쪽 발만 배에 탈 수가 있겠는가? 온전히 맡긴 바 된 심령은 초초로 하나님이 바라보지게 되어 있다. 일초 일

초 바라보지는 상태가 바로 맡긴 상태이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맡긴 바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를 점검하여 온전히 맡긴 가운데 일을 하고, 길을 가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맡긴 가운데 생활할 때 은혜가 연결되면서 날로 날로 그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6>

“자유율법을 지켜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선구자적 입장에서 전 세계에 나아가 메시아의 이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전하려면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

이다. 행동과 마음으로 전하려면 먼저 메시아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율법이 자유율법이고, 자유율법이 메시아의 율법이고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CESNUR참관가-김종석박사 발표논문

## 창시자 보광 후 무슨일 있었나?

2022 CESNUR 컨퍼런스는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종교의 다원주의를 대주제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캐나다 퀘벡의 리발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이번 미팅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종교현상과 종교개혁의 현실, 그리고 인류 미래에 대한 하늘의 새로운 계시나 경고, 율령이나 영사현상, 그리고 심령사건 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슬성령의 강림현상과 새로운 율법 등 미래종교에 관한 논문발표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중 특히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관했던 논문발표회는 창교자 타계 후 후계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통일교 내의 분열현상 및 새로운 신종교현상이었다.

필자도 연구발표자로 참가한 승리제단에 관한 논문발표는 “승리제단의 영생신앙에 관련된 종교개혁과 채식주의(Veganism)”를 핵심 주제로 구성된 논문 발표로써 6월 16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45분 동안 세션 8에서 좌장 에드워드 아이런 교수의 발표자 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슬성신의 종교현상과 박해의 역사를 외부연구자가 논하다

첫주자로 나선 한국메시아운동사 연구소장 김종석박사는 “육신영생을 주장한 승리제단 창시자가 보광한 이후 승리제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로 논문발표를 시작하였다. 김 발표자는 먼저 ‘승리제단의 출발과 역사, 특히 박해의 역사를 비롯하여 승리제단의 보편적 진리를 언급했다. 그리고 승리제단 성도들의 신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한 후 외부 연구자의 입장에서 참여관찰과 성령의 체험을 통한 ‘이슬성신’에 관한 체험연구사례를 이슬사신의 증거를 통해 교리적 측면과 종교현상학적 관점에서 소상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창시자 ‘보광’ 이후, 승리제단 성

도들이 신앙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이슬성신의 지속적인 종교체험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앞으로 승리제단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창교자의 ‘보광’에 관한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도 잘 안되는 이유 살펴봐야

승리제단 성도들의 신앙적인 최종목적이 육신 영생이지만 그 절대조건이 “누구든지 내몸처럼”, “형제를 내몸처럼”이라는 보편적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에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승리제단 성도들이 전도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성령에 의한 하늘의 역사를 그냥 ‘남’이 모든 것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승리제단 성도들이 스스로 나서서 ‘남’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상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통감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상천국을 속히 이루느냐 긴 세월을 통해 이루느냐는 하늘의 책임과 뜻에 맡기고 성도된 자들의 적극적인 사명 완수를 주문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간 승리제단 성도의 숫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위기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의 한 마디를 남겼다.

끝으로 김종석 발표자는 1997년부터 승리제단과 인연을 맺고 승리제단의 특이한 종교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 발표자가 승리제단을 참여관찰과 체험사례연구 과정에 있어서 2009년 쯤 그 당시 승리제단 신도회장 김삼욱 회장 시절 회원 일원으로서 명예 승사 임명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숙 승사 / 천안제단

## 특별기고 병겁의 신호탄 두창(痘瘡천연두)에 대비하라!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자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두창(痘瘡=천연두)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년 5월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된 후 유럽 북미 중동 및 아시아 등 4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6월 23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와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원숭이 두창은 일반 두창보다 전염성과 중증도가 낮으나 코로나 이후 또 다른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여기서 강증산 선생의 두창에 대한 예언 말씀과 격암유록의 예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천연두가 법정 전염병이었다가 천연두가 사라진 후 법정 전염병에서 빠진 상태였는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 외국에서 새롭게 감염자가 많이 나타나자 제2감염병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 시도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강증산 선생은 ‘시두(時痘=천연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大發)할 참이니 만일 시도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천연두가 크게 일어나면 병겁 즉 대 개벽이 곧 오리라는 뜻이 된다. 시두신명이 들어올 때 가 일시에 찾아온다고 하며 천자국(天子國)이라야 시두신명이 들어온다고 한 바 있다. 천자국은 대두목 정도령이 있는 국가라는 말이다.

한편 격암유록의 송가전(松家田)에 보면 우리나라에 세 번의 운수(雲水운)가 있는데, 첫 번째 수통일수당운(水籠一水當運) 이재송송(利在松松)으로 임진왜란 때는 소나무가 나를 살리고(명나라 李如松 장군), 두 번째 화서제수당운(火鼠再數當



원숭이 두창 환자의 급증이 예상되지 않다

運) 이재가가(利在家家)로 병자호란 때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 일어났으니 집(온돌)이 나를 살린다고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니 논외(論外)로 하자.

### 계묘년에 전염병 운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수토삼수종말(水兎三數終末) 이재전전(利在田田)이 문제이다. 수토는 ‘물토끼’이며 육십갑자로 환원하면 계묘(癸卯)가 된다. 따라서 계묘년에 소위 소두무족(小頭無足)인 귀(鬼)가 비화낙지(飛火落地) 즉 하늘을 날아다니며 땅에 떨어지는데 이는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 전염병이 두창(천연두=시두)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 것이다. 격암유록에서는 토사분화백조십손(虎蛇噴火百祖十孫)라고 하는데 토(兔)는 계묘년, 사(蛇)는 정사월(음력4월), 분화(噴火)는 귀(鬼)가 병을 일으켜 전 세계를 뒤덮는다는 뜻이다. 이때에 백조십손의 운이 닦치게 된다고 한다. 삼수(三數)는 세 번째 운수라는 말이고, 종말(終末)은 계묘년의 시두대발 후에 곧 닦칠 괴질 병겁으로 마귀(죽음)의 세상은 끝난다는 의미이며 이재전전은 시두대발과 괴질 병겁으로부터 목숨을 보전하려면 전전(田田)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

다.

그러면 ‘전전’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인즉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의 주인공 정도령을 말한다. 전(田)은 심전(心田)으로 마음 밭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 전전(田田)은 궁궁을 정도령 뜻해

육도삼락으로 보면 앞의 전(田)은 묵운(乙乙)이다. 묵운과 금운이 합하면 궁궁(弓弓)이요 뒤의 전은 금운이며 을(乙乙)이다. 묵운과 금운이 합하면 궁궁(弓弓)의 정도령이 된다. 계묘년으로 말하면 계는 묵운, 룡은 금운으로 계룡은 묵운과 금운이 합하여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격암유록의 은비가(隱秘峯)에 이인태전수전곡(二人太田水田穀)은 이를 두로 한 글이니 이인(二人)은 두 사람을 말한다.

강증산 선생이 화천하기 나흘 전 천지공사가 끝났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니 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시다면 세상에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간청하였으나 강증산 선생은 ‘사람 둘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노라, 라고 한바 그 ‘사람 둘이 묵운과 금운인 것이다. 세상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은 천지도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강증산 선생(북방불기 2898-2936)이 마력보로서 출현을 못했다는 말인즉 그래서 사람 둘을 말했던 것이다. 석가지은 삼천년이라는 말대로 석가모니의 삼천년도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전(太田)은 선원(仙源)으로 신선(하나님)의 근원처이다. 강(江)의 발원처와 같이 샘물이 아주 조금씩 나와서 그 물로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조금씩 나오는 샘물이 길게(長) 멀리(遙)까지 흐르면서 마지막에 농사를 지을 만큼의 물이 모인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곳이 수전(水田)이다. 수전은 금운으로 묵운인 태전

과 합이 된 곳이다. 따라서 수전 태전의 합이 정도령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도령 속에는 묵운으로 오신 심승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먼저 이긴 여인 한 분을 영적으로 생산한다. 다음에 다시 마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니 이른바 아미개돈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써 묵운에 오신 심승하나님이 완성을 해서 금운 정도령 속에 좌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심승하나님이 일남일녀를 생산 양육하여 하나님이 완성을 해서 금운 정도령을 백보좌로 삼아 좌정하는 것이다. 백보좌와 마귀를 이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일이 된 것이다. 이를 격암유록에서는 부자신중삼인출(父子神中三人出) 삼진신 중일인출(三眞神中一人出)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인태전수전곡에서 곡(穀)은 정도령이 사람농사를 지어 알곡을 추수하여 신선세계에 살 신선의 종자를 심게 되는 것이다.

### 감로해인은 살마광선임과 동시에 신선의 양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귀를 이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금운 정도령 속에 좌정하면 감로해인을 임의로 용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데 이 감로해인에서 무궁조화가 나오며 감로해인은 살마광선(殺魔光線)이면서 동시에 신선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거리(食料, 食物)이니 삼순구식불기생(三旬九食不飢生)이라고 삼십일에 아홉 번만 먹어도 굶주림 없이 영생하는 것이다. 사람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감로해인으로 농사짓는 것이다. 감로해인으로 죽음의 신인 마귀를 죽임으로써 사람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즉 인간의 탈을 벗고 신선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창이든 괴질 병겁이든 감로해인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감로해인을 부여주는 정도령을 만나라고 강증산 선생이나 격암유록 전편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죽으면 만사가 소용없고 지금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니 ‘일단 살고 불알’이라는 세상 말과 같이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다. 부디 하루 빨리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먹는 방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박 명 하 myunghpark23@naver.com

고서연구가 / 010 3912 5953

## 정도령 아 면 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 격암유록신해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살마광선이자 신선의 양식인 감로해인 사진에 나타난 모습들

